

# '5·18 헬기사격' 두고 엇갈린 '증언'

### 시민들 "섬광과 함께 드르륵 소리 들었다" 군 관계자 "사격지시 없어...탄흔 등 없다"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쟁점인 '5·18 헬기사격'을 두고 목격자와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이 엇갈리며 법정에서 실제적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있다.

12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기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지난 3월11일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회고록에 기재한 내용은 의견진술일 뿐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섬광과 함께 '드르륵' 소리 들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은 헬기에서 섬광과 함께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3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헬기 밖으로 총구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불빛이 일었다"며 "탄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같은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모씨는 "심부름으로 친척집을 갔다가 걸어서 돌아오면서 헬기 사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남씨의 증언을 뒷받침 하듯 모국립대학교 변모 교수는 "5·18 기간 동안 총상을 입은 시민들을 상대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었다"며 "남씨의 몸에서 나온 파편 등을 미국 업체 2곳에 분석을 의뢰했고, 6.5mm 이상의 크기로 M50

이상의 구경에서 발사된 탄환으로 강력한 철함급인 철갑탄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황하는 사람들 후미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고, 전남대병원 9층으로 총탄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다.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천주교도 이모씨는 "호남동성당에서 현수막을 만드느라 작업을 하던 중인 21일 오후 1시쯤 '드르륵' 소리가 들었다"며 "뒤를 돌아보는데 조비오 신부가 '이리 와보라'며 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정문까지 가서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헬기는 불로고 인근 상공에 있었고, 불빛이 비쳤다. 드르륵 하는 소리는 2차례 들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980년 5월 당시 육군항공부대인 31항공단 탄약관리 하사로 복무한 최모씨는 "갑작스러운 출격 명령이 있었다"며 "출격 후 돌아온 헬기의 탄약이 줄어 있었고, 헬기 5~6대 정도에 탄약을 보충해줬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헬기가 탄약을) 꼭 채워서 나갔는데 3분의 1쯤 비어서 왔다"며 "당시 탄환을 제가 4통인가 내줬으니 잘 알고 있다. 당시 운항을 나갔던 기록을 다섯 장 정도 작성했고 항공공보고서라든지 업무일지에 다 썼다. 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헬기 사격 없어...탄약 그대로 반납'

반면 11일 열린 공판기일에 참석한 전씨 측 증인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증인 1항공여단 31항공단 소속 구모·서모씨 등



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계엄군 모습

헬기조종사 2명과 송모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모 전 31항공대 506항공대 대대장 등 군 관계자 2명이다.

이들은 과거 검찰 조사 등과 같이 '광주의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 증거로 무장헬기가 사격을 했으면 도로나 주변 건물 등에 흔적이 남았을 것, 사격시 많은 탄피가 떨어졌을 것인데 이를 주웠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

구씨는 "헬기 위협사격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고 위협사격을 실시한 적도 없다"며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고 재보급을 받은 사실도 없다. 탄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납했다"고 말했다.

부조종사였던 서씨는 "사격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7.62mm 기관총 탄환 2000발을 탑재했지만 장전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단장은 "무장헬기는 출격했지만 광주에서 한발도 쏜 적이 없다"며 "무장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땅땅소리가 나지 않는다. 부속부속 소리가 나고, 도로 등에 흔적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격을 한다면 엄청난 탄피가 쏟아지는데 탄피를 주웠다는 사람도 없다"며 "100여명이

파견됐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헬기 사격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헬기가 속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땅땅땅 소리가 날 수 있다"며 "건물이 있으면 울림이 배가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대장은 "코브라로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며 "광주천에 대한 위협사격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서면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MD를 운행하면서 헬기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다"며 "사격을 하면 좌우측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처럼 5·18을 목격했던 시민들과 헬기조종사 등이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당시 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차 빼달라" 주차시비 식당주인 폭행한 4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차주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인 차주 B씨(42)에게 '주차된 차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며 이동 주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된 차 때문에 좌회전이 어렵다"며 B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의 얼굴을 할퀴고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인 B씨는 평소 자신의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성인 척" 알몸채팅 남성 협박 중국인 실형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한 뒤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불법채팅 조직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한국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스마트폰 앱으로 알몸채팅을 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 성폭행 상담사 구속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유령 심리 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인 기구 등이 현존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라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다"며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상담자인 김씨가 내담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 피보호자 간섭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화장실 간 사이 지인 딸 성추행 50대 징역 1년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그의 딸 C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C씨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